

한국양봉농협 소식 및 동정



☞ 21세기 한국인상 수상

한국양봉농협 조상균 조합장은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양봉산업발전에 농업인으로부터 귀감이 되고 한국양봉농협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07년 12월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민주신문사 제정 경영공로부문의 『21세기 한국인상』을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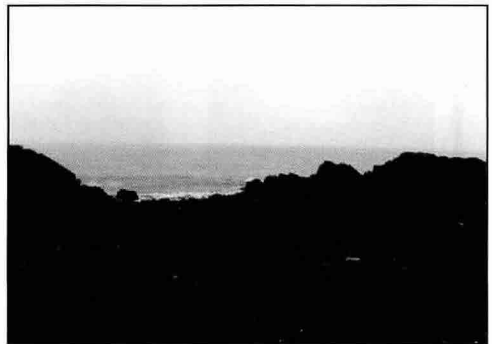
☞ 소외계층 20가구에 고급 방한복 · 내의 선물

2007년 12월 20일 신당2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사랑의 성품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한국양봉농협 소속 직원 30명이 활동하고 있는 봉사 동아리인 산천초목에서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선정, 각자의 치수에 딱 맞는 고급 방한복과 내의를 마련하여 선물하였다.



☞ 태안 기름제거 봉사활동

2007년 12월 22일 한국양봉농협 조상균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 20여명은 주말을 반납하고 태안군 원북면 황촌면 마우리에서 기름제거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날 새벽에 출발하여 현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작업 우의와 장갑, 마스크를 쓰고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기름을 흡착 부직포로 제거하고 원유 찌꺼기를 걸레 등으로 닦으며 비지땀을 흘렸다. 또한 태안지역 소재 소원농협, 원북농협에 지원금을 각 100만원씩을 전달하였다.



☞ 2007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 개최

2007년 12월 26일에 정해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신 저소득 어르신을 위하여 신당동 부녀회와 함께 정성을 모아 따뜻한 겨울보내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양봉농협조합장 조상균, 시의원 최병환, 중구 의회 의원 김기래, 김수안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저소득 노인들 100여분을 모시고 따뜻한 떡국과 다과를 준비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